

독일 보훔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

Werner Sasse/베르너 자세

(보훔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글 쓴 이

보훔대학의 한국어 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필자는 현황과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것들을 사실대로 설명하고자 한다. 과거에 필자를 많이 도와 주었던 한국 동료들에게, 그리고 한국 학술진흥재단에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룩한 성과를 보여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보훔대학 한국학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언을 해 준다면 그것은 나에게서 더욱 중요할 것이다.

1. 보훔대학 한국학 강좌의 역사

1964년 보훔대학에 동양학부가 창설되었을 때 일본학 학자인 브루노 레빈(Bruno Lewin) 교수는 한국어를 위한 강사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 후에 조교수 자리가 추가되면서 정식으로 한국학과가 탄생하였고, 서독에서는 처음으로 한국학을 부전공으로만이 아니라 주전공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보훔대학에는 한국학 도서관이 있고, 한국 학술진흥재단, 한국 여러 대학 부설 연구소, 국립 중앙도서관 등의 도움으로 장서도 10,000권에 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보훔대학에는 중국학과, 일본학과와 대등하게 한국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과로 존재하며 정식 학과 명칭은 '한국어 한국문화학과(Sektion für Sprache und Kultur Koreas)'이다.

이 명칭이 말해 주듯이 보훔대학 한국학과 강의 및 연구의 중점은 독일 문헌학(Philologie) 연구의 방향을 따르고 있다. 보훔대학 한국학과에서는 그동안 4명의 석사와 3명의 박사 그리고 2명의 교수 자격자(Habilitierte)

를 배출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성과에서 보여지듯이 보훔대학은 독일 한국학의 중심이 되고 있다. 1989년 한국학과에 조교수 자리 대신 정교수 자리가 생겼다. 현재 보훔대학에서는 주전공으로 24명, 부전공으로 55명의 학생들이 한국학을 공부하고 있다.

2. 보훔 대학 한국학 강의의 조건들

보훔대학 한국어 강의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이해해야 한다. 첫째, 외적 조건 즉 재정적 조건과 인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한국 대학과는 전혀 다른 독일 대학에 있어서의 한국학과의 전통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점은 역사적으로 발달한 독일 대학 체제의 전통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문화 과학(Kulturwissenschaft)이 지니는 내용적인 전통과도 관계된다.

2.1 외적 조건들(재정적 조건, 인적 가능성)

한국학과는 비교적 조그만 학과이다. 다시 말해 다른 학과와 비교하면 학생 수가 적다. 현재 한국학과에는 부전공 학생을 포함해서 79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중 대부분의 학생이 한국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다. 단지 24명의 학생만이 한국학을 주전공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이 학생들은 석사 논문을 한국학과에 제출하게 된다. 독일 대학의 다른 학과와 마찬가지로 한국학과에서도 최소 8학기(4년) 후에 석사 논문(Magisterarbeit)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석사 학위 취득까지 5~6년 정도 공부한다. 학생들이 최소 학업 기간(8학기)에 끝내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독일 학생들에게 한국어는 너무 어려운 언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 전통 문화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 학생들은 최소한 2~3년 동안 기본 중국어(한문)를 배워야 한다.

독일의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수업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독일어와는 그 구조가 완전히 다른 한국어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학업 기간은 길어지기 마련이다. 여기에서 한국학 공부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이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석사 학위 취득 후에는 박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박사 과정에서는 최소한 2년 동안 공부해야 하지만, 보통의 경우 요구 수준이 높아 더 오랫동안

동안 연구를 해야 한다.

나아가 교수가 되고자 하는 학생은 보훔대학에서 교수 자격 과정(Habilitation)도 가능하다. 여기에는 규정된 기간은 없지만 대부분 박사 학위 취득 후 5~10년 정도 더 연구를 해야 한다. (독일의 대학교육제도는 한국과 달리 석사 과정 4년, 박사 과정 2~3년, 국가 교수 과정 5~10년이고 학생들은 석사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부전공 2개 학과를 이수해야 한다.)

보훔대학 석사 과정의 학생들은 주전공 하나와 부전공 두 개를 이수해야 한다. 한국학 주전공 학생들은 4년의 석사 과정 동안 33강좌(이 중에는 연속 강좌도 있음.)의 강의를 받게 되고 부전공 학생에게는 21강좌이다. 독일 대학에서 한 강좌는 2시간이므로 주전공의 경우 한 학기에 주당 7~10시간, 부전공의 경우는 주당 5~7시간이다. (저학년의 경우에는 강의 시간이 적은데 이는 학업 초기에는 집에서 많은 연습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육이 주전공의 경우 20강좌, 부전공의 경우 14강좌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각 전체 강의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강의는 2명의 교수진(교수 1명, 강사 1명)이 도맡아 하며, 학기마다 강의 시간은 주당 33시간으로 교수와 강사가 비슷하게 분담하고 있다. 교수는 한국학 강의를 즉 한국어 문법, 개설, 세미나 등을 담당하고 있고, 강사는 한국어 강의 중 회화 연습과 강독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교수와 강사는 교재를 만들고, 시험 출제와 평가 및 도서관 업무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어 교육에는 차질이 생긴다. 한마디로 교수진이 너무 적다. 이미 교재가 완성되어 있다면(이에 대해서는 뒷부분 참조) 문제는 조금 나을 것이지만 역시 2명의 교수진으로 수준 높은 강의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한국학과처럼 작은 학과에서 현재로서는 교수진을 보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독일에서의 한국학의 역사가 짧다는 것이다. 독일의 한국학은 근래에 시작되었다. 보훔대학에서는 1964년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독일 대학의 다른 학과에 비하면 극히 짧은 역사이다. 짧은 역사 때문에 교재가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어 강의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 내적인 조건(한국학의 전통)

한국학과는 중국학, 일본학과 함께 동양학부의 소속이며, 문화 과학

(Kulturwissenschaft)으로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문제 설정에 집중하며 현대 한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현대의 한국 문화는 한국 문화사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적인 제 조건하에서 현대 한국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이념이다.

한국학은 문헌학(Philologie)이다. 다시 말해 한국학은 역사적 텍스트와 현대의 텍스트를 사적 배경과 현대적 배경하에서 탐구하고 문헌학적 방법으로 출발한다. 순수한 경제학적, 정치학적인 문제 설정은 한국학과에서가 아니라 경제학과나 정치학과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경제학과 정치학을 부전공으로 하고 있다.)

문헌학으로서 한국학은 텍스트가 그 중심이기 때문에 한국어 강의에 있어서도 현대 한국어를 무엇보다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한국어 강의는 문어(文語; Schriftsprache)로서의 한국어를 중요시하고 구어(口語; mundliche Sprache)는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학 연구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어의 근원을 밝히는 일이다. 그래서 현대 한국어 이외에도 중세 한국어와 고대 한국어 강의가 있다. 이 밖에 모든 한국 문자 역시 연구되어야만 한다. 즉 한글 이외에 이두(吏讀), 구결(口訣), 향찰(鄉札)도 강의하고 있다. 물론 학생들은 한자도 배워야 한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중국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하고 있다.)

3. 커리큘럼

다음 도표는 한국학 주전공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통해서 다른 강의와의 관계가 분명해진다. (도표 안의 일련 번호는 각자 1시간)

42 새국어생활 제 1권 제 2호('91 여름)

도표 1. 한국학 주전공 커리큘럼

겨울 1	여름 2	겨울 3	여름 4	겨울 5	여름 6	겨울 7	여름 8	
001 001 001 001 002 002	001 001 001 001 002 002	003 003 003 003	003 003 003	508 508	508 508			
		002 002		509 509	509 509	510 510	510 510	
						511 511	512 512	
	005 005							
		004 004	004 004					
007 007	007 007	007 007	007 007					
				514 514	514 514	515 515	515 515	
				516 516	516 516	517 517	517 517	
7	8	10	9	8	8	8	8	*1
6	6	8	8	4	4	2	2	*2

*1 주당 시간 수

*2 그중 한국어 시간

1) 도표 1의 숫자(이수 번호)는 표 1의 강의명을 나타낸다.

표 1 한국학 강의 일람

	한국어 강의	합 계
001 현대 한국어	2학기 동안 4시간씩	8
002 한국어 회화	4 2	8
003 현대 한국어 강독	2 4	8
004 중세 한국어와 한자 입문	2 2	4
508 현대 한국어 강독	2 2	4
509 중세 한국어와 한자 텍스트	2 2	4
510 한국어 회화	2 2	4
	총 계	40
	비 율	60%
	한국학 강의	합 계
005 한국학 연구 방법론	2학기 동안 1시간씩	2
007 입문 강의	4 1	4
1) 한국 문학		
2) 한국 역사		
3) 한국 종교		
4) 한국 지리, 경제, 정치, 행정 등		
511 한국어사와 한국어학	1 2	2
512 한국 문학사와 한국 문예학	1 2	2
514 고대 한국의 언어와 문학 (10세기까지)	2 2	4
515 중세 한국의 언어와 문학 (16세기까지)	2 2	4
516 근대 한국의 언어와 문학 (19세기까지)	2 2	4
517 현대 한국의 언어와 문학 (20세기까지)	2 2	4
	총 계	26
	비 율	40%

1) 부전공 학생은 주전공 학생과 함께 같은 강의에 참석하지만 이수 과목이 적다.

44 새국어생활 제 1권 제 2호('91 여름)

도표 2 한국어학 부진공 커리큘럼

겨울 1	여름 2	겨울 3	여름 4	겨울 5	여름 6	겨울 7	여름 8
------	------	------	------	------	------	------	------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508 508
혹은
509 509

여 준다. 이

005 005

511
511

512
512

004 004
004 004

007 007	007 007
---------	---------

514 515	516 517
혹은	혹은
514 515	516 517

5	6	8	7	4	4	4	4	*1
4	4	6	6	2	2	2	2	*2

*1: 주당 시간 수

*2: 그중 한국어 시간

- 1) 부진공 학생은 이수 번호 508과 509 중 관심에 따라 현대 한국어나 중세 한국어와 한자 강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2) 부진공 학생은 강의 일람표 중 이수 번호 514부터 517 중에 선호하는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4. 강의 일람, 목표와 교재

4.1 현대 한국어

001	현대 한국어	2 학기 동안	주당 4 시간
-----	--------	---------	---------

교재 : 한국어 입문(Einführung in die Koreanische Sprache), 레빈, 브루노(Lewin, Bruno)와 김 풍저, Heilbronn, 1974.

참고 문헌 : 서평, 고영근(언어 교육 6-2)

1 학기 : 1~11 과

2 학기 : 12~22 과

두 학기 동안 계속되는 이 강의에서는 한국어 문법의 기초가 강의된다. 2시간은 독일 교수가 한국어 문법을 강의하고, 학생들과 함께 한국어를 분석한다(이해력 중심). 나머지 두 시간은 한국 강사가 학생들과 함께 연습을 한다. 강의 목표는 간단한 한국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다(표현력 중심).

- 내용 : 1) 현대 한국어 문법 개관
 2) 한글 입문
 3) 약 1,500 단어
 4) 약 250 문법 형태소

002	한국어 회화	4 학기 동안	주당 2 시간
-----	--------	---------	---------

교재 : 1 학기 — 레빈/김, 이수 번호 001 과 동시에 강의가 진행
 2 학기 — 됴에 따라 추가로 연습을 한다.
 3 학기 — 한국 중고등학교 교재나 신문 등에서 간단한 텍
 4 학기 — 스트를 발췌, 학생들의 관심이나 부전공을 고려하
 여 강사가 스스로 준비한다.

이 강의는 학생들에게 간단한 한국어 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다. 학생들은 가정에서 연습을 해 오며, 강의 시간에는 텍스트를 읽고 따라 하고, 토론, 역할놀이 등을 한다. 이 시간에 새로운 단어는 배

우지 않고, 이 강의에서는 이수 번호 001에서 배웠던 잠재적 한국어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즉 학생들은 이미 배웠던 것들을 실제 이용하는 것을 배운다.

003 현대 한국어 강독	2학기 동안	주당 4시간
---------------	--------	--------

3 학기와 4 학기 해당 과목인 현대 한국어 강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2 시간 : 한국 문어 입문(Einführung in die Koreanische Schrift Sprache), 베르너 자세(Werner Sasse), Heilbronn, 1985.

3 학기 : 1~10 과

4 학기 : 11~20 과

내용 : 1) 550 한자

2) 레빈/김, 1974 교재의 단어 반복

2 시간 :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재나 신문 등에서 발췌 혹은 강사가 작문한다. 학생들의 관심이나 부전공을 고려하여 강사가 스스로 준비한다.

이 강의에서는 한글과 한자가 섞여 있는 한국어 텍스트를 읽고 해석한다(표현력 중심).

508 현대 한국어 강독	2학기 동안	주당 2시간
---------------	--------	--------

5 학기와 6 학기 해당 과목인 이 강의에서는 전문적인 학과 문헌들을 읽게 된다(언어학, 국문학, 국사, 민속학, 정치학, 경제학). 먼저 레빈/김, 자세 교재의 다음 책인 하프트만, 안냐(Haftmann, Anja)와 자세, 베르너(Sasse, Werner) 공저(원고는 완성됨, 출판 준비 중)를 배운다.

내용 : 1) 추가 한자 600 자

2) 여러 분야의 각종 원문 텍스트

교재가 끝난 후에는 백과 사전이나 전문 학과 사전에서 발췌한 텍스트들을 읽는다. 텍스트는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 학생과 강사가 함께 선택한다. 강의 목표는 잠재적 한국어 능력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510 한국어 회화

2 학기 동안

주당 2시간

7 학기와 8 학기 해당 과목인 이 강의에서는 학생들이 집에서 직접 준비한 작문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자신들의 회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목표는 학생들이 집에서 직접 텍스트(작문, 편지 등)를 작성하여 강의 시간에 토론하게 함으로써 한국어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4.1.1 요약 : 현대 한국어 강의의 구성과 목표

		현대 한국어 강의의 목표					교 재		
학 기	일 련 번 호	강의의 중점			목 표		(a) Lewin/Kim (b) Sasse (c) Haftmann/Sasse	강사 준비 (가)	학생 준비 (나)
		구 어	문 어	구 어+문 어	표 현 력	이 해 력			
1	001			4		4	(a)		
	002	2			2		(a)		
2	001			4		4	(a)		
	002	2			2		(a)		
3	003		2			2	(b)	(가) (가)	
			2			2			
	002	2			2				
4	003		2			2	(b)	(가) (가)	
			2			2			
	002	2			2				
5	508		2			2	(c)		
6	508		2			2	(c)		
7	510			2	2			(나)	
8	510			2	2			(나)	
비 율		8 : 12 : 12			12 : 20				

위 도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비 율

口 語 : 文 語 : 口語 + 文語

4 강좌 : 6 강좌 : 6 강좌

위의 비율은 보훔대학에서 文語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문헌학적인 학과로서의 보훔대학 한국학과의 중심은 口語나 현대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상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한국말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연구들이와 같이 강조함에도 텍스트를 빨리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물론 전체적으로 한국어 강의가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수진으로 한국어 강의를 증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독일 대학 체계에서는 교수가 자의적으로 강의 시간을 늘릴 수 없다. 한국학과는 독일 내 다른 대학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만 강의 시간 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진을 보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현재 독일 대학의 긴축 예산 편성 때문에 불가능하다. 교수진을 보강한다면 현재의 4년 석사 과정에 1년의 예비 과정(전공 시작 전 1년 동안의 어학 과정)을 추가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현재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4 학기 후에 한국에 가서 1년 정도 어학 과정에 참가하는 식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2) 강의 목표

표현력 중심 : 이해력 중심

6 강좌 : 10 강좌

로서 문헌학적인 학과로서의 한국학의 전통을 보여 주고 있다.

3) 강의에 사용되고 있는 교재는 학업 단계에 따라 다르다. 처음에 학생들은 교수진이 20여 년의 강의 경험을 통해서 꾸준히 발전시킨 교재를 사용한다. 다음에는 강사가 직접 준비한 한국어 원문 텍스트를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한다. 위에서 언급한 교재들은 전부 보훔대학에서 개발된 것들이다. 레빈/김(1974) 교재는 독일 폴크스바겐 재단(Volkswagen-Stiftung)의 지원으로, 자세 교재와 하프트만/자세 교재(원고 완성)는 한국 학술진흥재단(Korea Reserach Foundation)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교재들을 가지고 한국어 문법과 한글 그리고 1,150 한자의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4.2 중세 한국어와 고대 한국어

004 중세 한국어와 한자 입문	2 학기 동안	주당 2 시간
-------------------	---------	---------

이 강의의 목표는 중세 한국어의 문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어와 관련된 다른 두 개의 목표를 갖고 있다.

- 1) 한국어 문법의 발전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현대 한국어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예를 들면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는 후치사의 기능과 사용은 중세 한국어의 문법 형성 과정을 통해서만 체계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 2) 음운 변화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언들도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가사, 가새, 가시, 가스개, 가시개, 가왜, 가이, 가우'와 표준어 '가위'와의 방언 차이는 이러한 방언 차이의 기원인 'ㄱ새'로부터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중세 국어 입문 과목은 옛 문헌들을 알기 위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물론 이것은 한국학에 대한 학문적 문제 제기로서 중요하지만, 현대 한국어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내용 : 3 학기 : 음성학과 음운 변화
4 학기 : 형태론과 문장론

독일어로 된 교재는 현재 완성되지 않았으나 준비 중이고,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약 2년 후에는 완성될 것이다. 현재는 강의의 기초 교재로서 다음 책을 이용하고 있다.

이기문 1961 : 국어사 개설, 서울, 개정판 1972.

독일어 번역 : Lee, Ki-moon: Geschichte der Koreanischen Sprache.

동시에 다음과 같은 문법책들이 참고되고 있다.

고영근 1987 : 표준 중세 국어 문법론, 서울 1987.

김승곤 1978 : 한국어 조사의 통시적 연구, 서울 1978.

안병희, 이광호 1990 : 중세 국어 문법론, 서울 1981.

이승녕 1961 : 중세 국어 문법론 - 15세기를 주로 하여 -, 서울 1961.

개정판 1981.

최범훈 1981 : 중세 국어 문법론, 서울 1981.

허 응 1969 : 옛 말본, 서울 1969.

허 응 1975 : 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서울 1975

레빈, 브루노(Lewin, Bruno) : Morphologie des Koreanischen Verbs
(한국어 동사의 형태론).

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위에서 언급한 책들 중에 나타나는 문법에 대한 학술 용어의 비통일성과 제 이론들의 상이성이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중세 한국어에 대한 독일어로 쓴 통사적 '중세 한국어 문법' 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509 중세 한국어와 한자 텍스트 2 학기 동안 2주당 2시간

이 강의에서는 원문들을 읽고 해석한다. 처음에 훈민정음 전문을 읽고 용비어천가, 고시조, 향가 등을 발췌하여 읽는다. 교재로서는 한국에서 나온 주해본을 사용하며, 항상 영인본도 사용한다.

4.3 세미나

514	고대 한국의 언어와 문학(10세기까지)	2 학기 동안	주당 2시간
515	중세 한국의 언어와 문학(16세기까지)	2 학기 동안	주당 2시간
516	근대 한국의 언어와 문학(19세기까지)	2 학기 동안	주당 2시간
517	현대 한국의 언어와 문학(20세기까지)	2 학기 동안	주당 2시간

이 세미나의 주요한 목적은 언어학, 국문학, 국사, 민속학, 정치학, 경제학 등 각각의 원문들을 주의 깊게 그리고 비판적 방법으로 읽고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향가, 농가월령가, 가면극, 무가, 현대시, 민중 문학 작품 등.

물론 이러한 세미나의 토대는 언어이기 때문에, 세미나에서는 계속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게 된다.

결 론

독일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놓여 있고, 계속해서 개

선되어야 한다. 보훔대학 역시 마찬가지다.

보훔대학 한국학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어를 읽고 어려운 텍스트들을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해독하는 것이다. 한국어 회화를 그보다 중요하게 생각지는 않는다. 필자는 보훔대학 졸업생에게 “나는 보훔대학에서 한국말을 공부했다.”라는 말보다 나는 “보훔대학에서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데 일생 동안 필요한 도구를 갖추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 다시 말해 보훔대학 한국학과가 추구하는 목적은 한국 문화와 언어를 그 뿌리부터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말은 빨리 배우고자 하는 학생은 한국학과가 아니라, 본(Bonn)이나 동베를린(Berlin-Ost)에 설치되어 있는 번역자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한국어를 근본적으로 배우고, 그것을 통해 한국 문화의 근본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은 한국학과의 분석적인 강의 방법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내심을 갖는다면 결국에는 더 좋은 한국어를 배우게 되고, 한국어의 구조를 파악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사고방식 그 자체까지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자명하게도 처음에는 강의에서 이러한 높은 이상이 설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에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강의를 그것에 맞추려고 끊임없이 힘을 기울이는 동안에 우리는 이상에 가까워지고 강의는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